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3월 5일 (제1191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시간을 요리하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시간을 잡아둘 수 없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두 번 시계주를 움직이셨는데, 한 번은 여호수아와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찌어다”(수10:12) 라고 하자, 하나님이 해와 달을 거의 하루 동안 그 자리에 머물게 하였고,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됨을 알고 면벽하고 통곡하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 병을 낫게 하시고 그 증표로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 물러나게 하셨다(왕하 20:11). 과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시간을 잡아둘 수 없다. 심지어 우리의 시계는 단 한 번도 고장 나지 않고 재깍재깍 잘도 간다. 그러나 아는가? 시간을 잡아둘 수는 없지만, 시간을 요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간을 잡아두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이 시간을 요리하는 거다. 어떻게 시간을 요리할까? 성경은 말씀하신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골12:11)).

바로 이것이다. 부지런을 떠는 것, 그것이 시간을 맛나게 요리하는 방법이다. 왜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되는가? 시간보다 느린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변함 없이 정해진 속도 이상 달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삶의 속도를 내면 되지 않겠나. 내가 시간보다 빨리 달리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시간을 내 맘대로 요리할 수 있다.

성경은 시간을 요리하는 자, 곧 부지런한 자가 어떤 삶을 누리는지 말씀하셨다.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잠12:24), ‘부귀를 얻고’(잠12:27), ‘마음은 풍족함을 얻고’(잠13:4), ‘왕 앞에 서고’(잠22:29).

시간을 탓하지 말라. 시간이 없다 얘기하지도 말라. 시간은 죄가 없다. 해가 떠도 침상을 구르는 내 잘못이고, ‘내일 하지.’ 하고 미루는 내 잘못이고, ‘천천히 하지.’ 하는 내 잘못이다.

성공한 자들은 시간을 철저히 관리한 자들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부지런하여 시간을 요리하는 멋진 요리사가 될 수 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5:16).

사면복권 됐으니 다시 시작해라

해마다 삼일절, 광복절, 성탄절 등 큰 절기에 정부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하여 정치 및 경제사범,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사면 및 복권을 단행하곤 한다. 국가 축일에 국민화합이라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대사면령인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정치인, 기업인 등이 사면복권의 수혜를 입기도 하였다. 이 사면복권 절차에 따라 형을 살던 죄인들이 인신구속에서 해방되고 법으로 제한되었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국가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통령은 사면권이란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수에서 사면복권 되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26년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하다가 사면복권 되었고, 대통령에 선출되어 남아공의 오랜 흑백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면복권이란 수혜를 입고 이전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죄를 짓고 추락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면복권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겨줘도 도로 우리에 넣는 것처럼, 개전의 정을 보이지 못하면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영벌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사면복권(赦免復權) 됐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봉우 이초석 목사

다시 시작해라!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救贖)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사면복권 시킨 기념비적 사건이다. 간음 현장에서 발각되어 끌려온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던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전 일은 기억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웅변한다. ‘네의 죄를 사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이다. 목사님은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셨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셨을 뿐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격려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요8:11).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에게도 역시 다시 죄짓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5:14). 죄를 타고 들어오는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이전보다 더 악한 병에 걸리거나 더 피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히6:4-6).

예수께서는 자신을 세 번씩 부인하고 코가 석자나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가 그의 사랑을 확인받으신 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며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요21:15~17). 어떤 이는 사면복권의 은혜를 통하여 하늘의 권한을 위임받아 누리며 사는데, 어떤 이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선택은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사면복권의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5:38~40)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형통하다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가장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로10:10).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존하는 문제에서도 구원하신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의 2/3 동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신 것이 그 증거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고통스럽게 하고, 싸우게 하는 주범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더욱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3:8). 바로 마귀라는 놈입니다. 마귀가 줄개인 귀신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쫓아내셨습니다(눅13:3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14:16~18).

‘보혜사’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곧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님은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본시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하므로 우리를 도울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요16:7). 왜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와 연합할 수 없으나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혜사로 각 심령에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소경 바디매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야 했고, 중풍병자를 둔 네 명의 친구는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빌2:9~10).

이토록 위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 소유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1:12),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행1:8).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니 그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던 베드로

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에게 잡혀 옥에 갇혔습니다(행4). 이 일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는데, 이날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들 문중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행4:18).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명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행4:16). ‘유명한 표적’이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앓은뱅이를 일으켜 걷게 한 사건입니다(행3).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난감해졌고, 한편 시기가 발동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행4:7).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행4:8~10). 바로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앓은뱅이가 일어난 것을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도 현세의 문제해결이 구원임을 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앓은뱅이에게 구원은 서서 걷고 뛰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구원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영혼의 구원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행했던 ‘유명한 표적’, 곧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은 인생의 마스터키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물질축복의 문, 건강의 문, 행복의 문, 형통의 문, 영생의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성령을 받아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간다

그런데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총알이 장전된 총알이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토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병과 죄를 주관하는 것은 악한 마귀요, 귀신 일진대 그것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세요. 그러면 총알이 나가듯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앞에 그것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해야 예수 이름이 나가서 여러분이 구한 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요14:13).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나 형식적인 유대 종교에 머물러있는 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요5:47). 이는 통념적인 신앙을 버리고 나 예수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비밀을 간직하라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자기만의 비밀이 있고, 남에 대한 비밀, 즉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의 비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인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폭로해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 두 눈이 빠지고 연자맷돌을 굴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혼자 간직해야 하는 자신만의 비밀을 함부로 남에게 이야기해서 일생을 망치고, 하나님의 일도 그릇되게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토마스 하디가 쓴 세계 명작소설 ‘테스’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남편과 결혼한 테스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남편이 이해해 주리라 믿고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전 어떤 남자에게 몸을 빼앗겼으며 죄책감을 떨고 살고 싶다고 비밀을 털어냈는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격적이던 남편이 어느 날 브라질로 출장을 간다고 나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테스는 그제야 본인이 버림받은 것을 알고 자신의 순결을 빼앗은 전 남자를 살해하고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가고 맙니다. 전 남자의 잘못도 있었으나 아무도 모르는 본인만 아는 비밀을 스스로 이야기해 인생을 망치게 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잠언 25장 2절에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모두 다 드러내놓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출 것은 감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도 재림의 날은 아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로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십니다(마24:36)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하인들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진행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방언이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비밀리에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전14:2).

잠언 20장 19절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하였고, 잠언 25장 9~10절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수욕이 평생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함부로 SNS에 여러분의 사생활을 오픈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알지만 발설하지 않고 마음에 일생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 거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마음속에 두고 입술을 잘 지켜서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가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141:3).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인생을 바꾸는 말의 힘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더니, 혀를 쓰지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고 말씀하고 있다. 즉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과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예수님의 말을 연구해보면 몸의 세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토고스)’으로 존재하셨다고 소개한다, 하나님은 ‘말’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셨다. 결국 말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것이었다(요1:1).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의 권세를 혼자 가지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 한마디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우리의 자화상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이나 경력보다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말을 듣고 성장했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자화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자화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이 말한 대로(민14:28) 40년 광야생활을 통해 그 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복을 누렸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날마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다.

말의 영향력을 알았던 솔로몬 왕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얻었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잠6:2)고 말한다. 우리 말이 우리 행동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묶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로 행복한 삶을 설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정금 전도사

상어가 나타났다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좋아한다. 그래서 청어가 비싼 값에 매매되는데, 살아있는 청어라면 당연히 더 값을 잘 쳐준다. 그래서 상인들은 청어를 살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써봤지만, 이것들이 성질이 급해 금방 죽어버리고, 오래 차를 타면 어지럼증으로 비실비실하기 일쑤다. 그러자 한 상인이 머리를 썼다. 청어를 담은 물탱크 안에 작은 상어 한 마리를 같이 넣은 거다. 상어가 청어를 먹어봐야 몇 마리나 먹겠는가. 그런데 청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위기다. 그래서 죽어라 도망치느라 성질부릴 사이도, 멀리할 틈도 없어 끝까지 살아있었다. 살다 보면 상어 같은 문제와 사람, 상황과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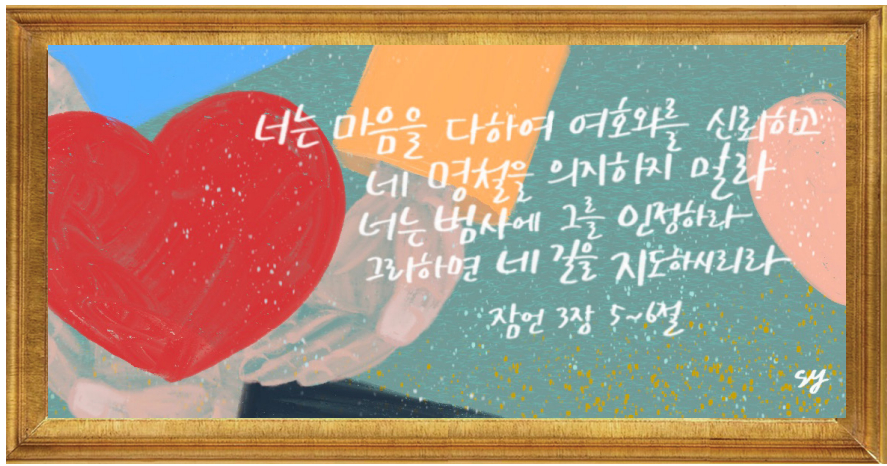
해외집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술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낭떠러지인 줄 알았다. 그래서 발버둥

치고 안절부절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돌이켜보니 위기가 나를 강하게 했고, 위기 대처능력을 갖게 했고, 분별력을 갖게 했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다. 그 위기는 내게 상어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잠24:10).

위기는 동아줄 같은 것이다. 그 동아줄을 보고 이것이 목을 매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실패자요, 그것을 잡고 탈출을 시도하는 자는 성공자다.

아스팔트로 된 곧은 길만 계속 달려봐라. 그것은 인생에 멀미를 일으킬 것이다. 위기라고 무서워 말고 그것에 대응하는 자가 돼라. 상어가 나타났는가? 위기가 왔는가? 그것은 또 다른 기회가 온 것임을 직감하라.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항상 동행해주시는 친구

인생길을 홀로 걷기보다는 든든한 누군가가 내 곁에서 동행한다면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잠깐 동행할 뿐이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다(히13:5).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때로는 배신할 줄도 뻔히 아시면서도 ‘너는 내 친구’라고 속삭이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세상 친구는 나를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속이면 그냥 들어주고 참아주신다. 배반할지라도 책망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으신다.

항상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너무 느려. 나는 이 습관을 왜 버리지 못하는지, 나는 정말 한심해.” 물론 누구나 자기 인생에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하나님이 붓을 꺼내 생명책에

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시고 “저놈은 어쩔 수 없군.” 하실까? 천만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실망을 시켜드려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항상 처음과 똑같다.

내가 당신에게 뺏겼한 지폐를 주면 받겠는가? 싫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지폐를 구겨서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었다고 하자. 이런 지폐라도 받을 생각이 있는가? 당연하다. 내가 그 지폐를 가져가 땅바닥에 던지고 그림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밟았어도 받겠는가? 물론이다. 왜일까? 아무리 지저분하게 만들었어도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지폐는 여전히 그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 돈처럼 보신다. 우리는 누구나 난관에 부딪히고 시련을 겪는다. 때로는 구겨지고 더러워진 지폐 같은 심정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지폐가 여전히 가치 있듯이, 우리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주셨으니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임택함 목사

여덟 명의 자식과 한 명의 애인

엄마가 57세에 혼자가 되어버렸다. 나의 이혼소식에 쓰러진 아버지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고, 그렇게 현명하셨던 엄마는 정신이 반 나간 아줌마가 되어 큰오빠, 작은오빠 눈치보기 바빴다. 이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 큰오빠 말에 그 큰집을 팔아 큰오빠에게 다 맡겼고, 나 몰라라 하는 큰오빠 때문에 작은오빠의 모든 원망을 다 감수해야 했다. 사이 좋았던 팔 남매가 큰오빠 때문에 모이는 횃수가 줄어들수록 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갔고, 노름하는 아들한테조차 할 말을 못하는 딱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걸 이해하는 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형제들에게 돈을 풀어주었고, 그런 나에게 미안했던 엄마는 가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넌 날지 않았으면 난 어떻게 뻘했니?” “괜찮아, 엄마. 엄마는 우리 여덟 잘 키웠구 큰오빠가 지금 자리잡느라고 힘들어서 그렇지, 효자잖어. 이젠 새끼 걱정 그만하고 애인이나 만들어서 즐기고 살아!” “애인은 안 돼. 네 아빠같은 남자가 없어.” 그러던 엄마가 어느 날 나에게 슬그머니 말씀하셨다. “남자친구가 생겼어. 작년 해운대 바닷가 갔다가 만났는데 괜찮은 거 같아서 가끔 같이 등산 간단다.” “어쩐지…. 자꾸 등산을 가더라. 뭐하는 분인데?” “개인병원 의사인데 사별했대.” “이번 엄마 환갑 때 초대해 봐.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말해놓으께.” 우린 엄마 생신 때 호텔 연회장을 하나 빌렸고, 엄마 지인들과 여고 동창들을 다 초대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도…. 엄마 남자친구는 멋졌다. 그리고 어울렸고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겨 더 좋았다. “그 집 아들들이 재혼을 원한다는데 어찌지?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좀 그렇다네.” 모두들 찬성이었다. 그런데 작은오빠가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안돼 엄마. 그런 게 어딴여? 우리 불쌍한 아버지 어찌라구! 이 나이에 또 남자가 필요해? 우리 자식 보며 살면 안돼? 창피해! 형은 장남이 돼가지고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래? 내가 모실 테니 걱정마. 그러면 아버지 제사 땀 어쩔 건데? 엄마! 아직 난 엄마가 필요하다구!!” 말도 안 되는 꾀변을 늘어놓는 미친놈이 보기 싫어 형제들은 다 가버렸고, 소리 지르며 욕을 퍼붓는 나를 엄마가 막으셨다. “그만해라, 없었던 일로 하마.” 그리고 다음 해!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 울케와 싸웠다고 작은오빠가 전화가 오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 나를 뒤로 하고 간 엄마는 다음날 병원 응급실에서 만났다. 새벽에 열까 봐 수돗물을 틀어놓으러 나오셨다가 쓰러져 뒤늦게 발견된 엄마! 우리 자식들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혼수상태의 엄마를 처음엔 매일 붙어있었지만 시간이 좀 흐르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슬슬 불일들을 보기 시작했고, 면회시간을 꼭 지켜 기다리고 있는 건 병원을 맡기고 온 원장님뿐이었다. 우린 깨어나지 않는 엄마를 기다릴 뿐이었는데 원장님은 엄마를 주무르며 계속 속삭였다. “박 여사, 일어나요. 우리 전에 시장 가서 먹었던 선지국밥! 그거 또 먹으러 갑시다. 내가 사준 원피스도 빨리 입어봐야지!” 병원에서 그 원장님은 우리 형제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병원에서 해줄 것은 없습니다. 퇴원 하셔야 됩니다.” 평생 식물인간이라는 판정과 함께 어디로 모셔갈 건지를 정해줘야 차로 모셔다 준다는 말에 모두들 헉! 큰울케가 먼저 말했다. 자신은 환자를 집에 모시는 건 못한다고. 둘째 오빠가 말했다. 맞벌이라 안 된다고. 장가도 안 간 스물여덟 살 막내동생은 울기만 한다. 딸들

표정은 당연히 큰오빠가 해야지 본인들 하곤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오빠들은 ‘그동안 네가 모셨으니 계속하면 안될까?’ 하는 표정으로 날 본다. 난 결국 내 집인 줄은 알지만 그런 형제들 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 제가 감히 한마디 해도 되나요?” 언제 오셨는지 우리 곁으로 오신 원장님. “제가 그때 박 여사와 재혼을 말할 때 박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필요한가 봐요. 자식들이 내가 필요 없다 하면 그때 갈게요’ 라고 했어요. 지금도 엄마가 필요하세요? 난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숨만 쉬고 있는 박 여사가 필요합니다.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 병원이 박 여사한테 더 편할 겁니다.” 작은오빠가 통곡을 했다. 다른 형제들이 울기 시작했다. 결국 엄마는 퇴원을 못하고 돌아가셨다. 모두 저마다 믿는 신에게 기도했겠지만 난 엄마에게 부탁했다. “엄마! 엄마의 이뻐던 모습만 보고 먼저간 아버지는 잊고 엄마의 추한 병든 모습까지도 사랑한 이 원장님만 기억하고 가, 엄마! 엄마는 팔 남매 키운 공은 못 보고 가셨지만 여자로 사랑만큼은 멋있었어.” 67세에 우리 엄마는 그 가슴 졸이며 평생 키운 팔 남매가 아닌 몇 년 만난 남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자식이 식물인간이 돼 있다면 부모는 무엇을 이유로 뱉까. 우리 팔 남매는 엄마를 모셔가지 못할 이유가 다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나도 그 입장이라면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이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엄마한테 묻고 싶다. “엄마~ 또 다시 새 인생을 준다면 팔 남매 낳을 거야?”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2~3).

예수님도 속았느냐?

용문산 기도원에 김기동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오신다는 광고를 보고 3박 4일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사무실에 접수를 하고 방을 배정받아 들어갔다. 6, 7명의 목사님들과 통성명을 하게 되었는데 나도 악수를 하며 교단과 교회를 말했다. ‘이초석 목사님의 예루살렘교단 포항예루살렘교회 담임 이승효입니다.’라고 하자 다들 악수를 거절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이단 줄개가 왔다 싶었는지 상종을 하지 않았다. 집회 시간과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드러누웠고, 나는 베게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말씀을 읽었다. 마지막 날 한 사람이 나에게 ‘목사님은 방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경을 읽느냐?’며 말을 걸었다. 나는 그에게 이단이라고 악수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데 성경이나 봐야지 뭐하냐?’고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은 우리를 이단 취급하는데 우리가 이단이면 당신들은 사단’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귀신 쫓으라 하셔서 우리는 귀신 쫓는데 당신들은 안 쫓지 않느냐? 시키는 대로 해서 이단이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단이지 뭐냐? 그리고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마귀가 귀신으로 가장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며 성경을 계속 주장했다.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하늘에서 쫓겨나 마귀가 되었고 마귀는 천사가 변질된 것이며 죽을 수 없는 존재이고 귀신은 죽은 자다. 제시는 귀신에게 하고(고전 10:20), 귀신은 죽은 자다(시106:28). 점은 귀신이 하고(행16:16), 점하는 귀신은 죽은 자다(사8:19). 당신들의 말대로 마귀가 죽은 사람으로 가장하여 속인다면 예수님도 속았느냐? 마귀가 죽은 자로 가장한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마귀에게 속은 것 아니냐? 예수님이 ‘마귀야, 나가라’ 하셨어야 속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신들은 왜 불신자의 사후 존재 귀신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었느냐?’며 물아세웠다. 쥐 죽은 듯이 가만히 듣던 그들이 ‘목사님은 어디서 성경을 많이 배웠느냐?’며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다. 담대함은 지식으로부터 온다.

이승효 목사

제자리에서

:: 일본에서 온 편지 ::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 사람은 누구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원천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일에서 기쁨을 찾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즐거움을 찾고, 또 어떤 이는 소유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러한 세상의 조건들 속에서 오는 기쁨은 지극히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는 고귀하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임이

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자의 깊숙한 심령의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이 먼저 있고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로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포장할지라도 주님은 그 말을 하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각이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은 결과를 맞지만,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물건이 각자의 자리에 놓여있어야 제 역할을 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수선했던 시대를 사는 만큼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튀르키예를 도웁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22494
농협 1379-01-001903